

3기 신도시 '로또분양' 기대감...국민 절반 '청약통장'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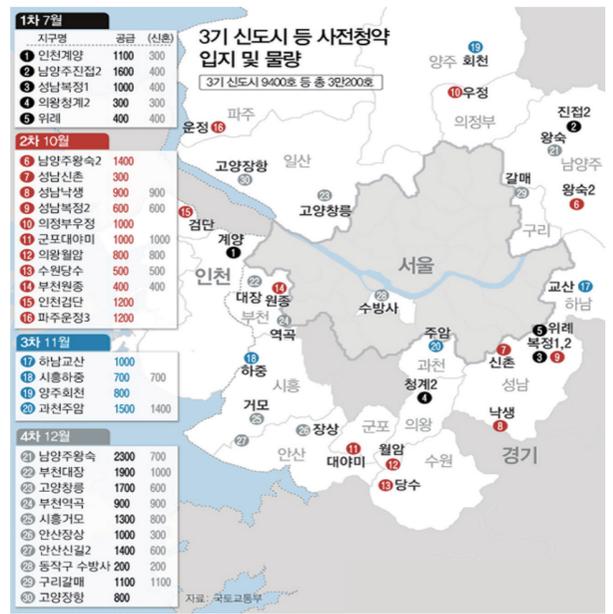
부동산원 4월 청약저축 가입은 2617만6751명
 기존 주택 너무 비싸...“새 아파트 눈 돌리자”
 “로또분양, 나도 맞아보자”...역대급 청약경쟁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눈앞...인천·경기 가입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가까워지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기존 주택의 가격이 워낙 오른 데다, 학습 효과로 '로또 분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청약통장을 가진 이들은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17만6751명으로 전월 2606만4515명보다 11만2236명 늘었다. 올 1분기 내내 증가폭이 15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수치가 떨어졌지만, 새 집을 원하는 이들의 간절함이 커지면서 가입자 수는 날이 날아가는 추세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 경기도 평균값은 5억1161만원이다. 전자는 7개월 만에, 후자는 9개월 만에 약 1억원이 올랐다. 기존 주택은 정부의 집값안정대책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되는 새 아파트

는 조정 및 하락 국면이 와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통장 가입의 이유로 해석된다. 청약경쟁률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난 11일 1순위 청약마감 결과 302가구 모집에 24만434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809대 1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인 2015년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622대 1과 비교해도 한참 높은 경쟁률이다. 오는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전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에서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2기 신도시들에 비해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다. 입주 뒤 한참 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2기와 달리 계획 단계부터 광역철도망 등 교통대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정부는 내년에도 3만 가

구 이상의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경기지역 가입자 증가폭이 서울 지역을 한참 웃돈다. 서울 가입자는 전월에 비해 9400여명 늘었지만, 인천·경기는 약 4만 명이 달한다. 기존 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청약의 노리는 데에는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저가에 분양받은 뒤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는 심리를 배제할 수 없다. 고선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GTX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된 만큼 이 곳 집값도 크게 오를 여지가 있다"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정부가 계획한 공급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선욱기자



KT, 국내 사업자 최초 AMD 서버 클라우드 상품 출시
 KT(대표이사 구현호, www.kt.com)가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최초로 AMD 프로세서 기반 가상 서버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상품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AMD 서버는 기존 동일 사양 서버 요금의 80% 수준으로, 기업고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작두콩 유래 '손 세정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 능력 인정

전남대 연구소기업 (주)바이오쓰리에스 개발 '노로-X'
 작두콩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손 세정제가 코로나19 중화 능력을 인정받아 주목 받는다. 18일 전남대학교 연구소기업 (주)바이오쓰리에스(BIO3S)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손 세정제 '노로-X'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선정하는 신제품(NEP) 인증서를 20일 수여 받았다.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부여한다. BIO3S가 작두콩 유래 천연단백을



원료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손 세정제 '노로-X'는 노로바이러스 잔류량 기준 97.3%의 세정효과를 보인다. 이번 신제품(NEP) 인증은 이같은 검증 자료를 통해 생산시설 등의 실사 과정을 거쳐 받게 됐다. BIO3S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노로-X' 제품을 활용해 안전한 국제대회 개최를 지원했고, 소외 계층을 위해 CTS 기독교방송국에 제품을 기부하는 등 사회적 공헌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 공로를 인정받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장을 받는데 이어 올해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테크(Tech)밸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도 지정돼 조달청 혁신 장터를 통해 공공위생에 기여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최이슬기자

대세는 무라벨...편의점 PB 생수 출시 잇따라

최근 무(無)라벨 PB생수 '얼수얼수'를 선보였다. 세븐일레븐 무라벨 생수 '얼수얼수'는 지구를 뜻하는 'Earth'와 물 '수(水)'가 합쳐진 말로 '지구를 지키는 물'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얼수얼수'는 완전 투명 무지 형태의 패키지로 상품 표면에는 라벨은 물론 어떤 인쇄물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 용량, 수원지 등 상품 필수표기항목은 병뚜껑 라벨지에 표시했다. 또 병뚜껑에 7종의 멸종위기동물 그림을 넣어 다른 무라벨 생수들과의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업계는 라벨을 떼 자체 브랜드(PB) 생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농식품부, 물가 안정 앞당긴다...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강화

수급 대책반 실장급 격상, 안정때까지 격주 단위 개최
 “축산물 값 당분간 평년보다 높아...안정세 조기 안착”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농축산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식품·외식업이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농업관측본부 오송사무소에서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등 수급관리 유관

기관을 비롯해 식품·유통·원자재·원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조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점검반 활동과 함께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수급 대책반을 실장급으로 격상했다. 농축산물 물가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될때까지 격주 단위로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높은 가격을 보인 계란 등 축산물과 양파·대파 등 원예작물,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가 상승 우려 등에 대응해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인중 식품실장은 회의에서 “가정 소비 등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6월 산란계 보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계란 등 일부 품목은 당분간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의 확대·방출을 추진할 것”이라며 “계란의 경우 가격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5월 추가 수입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6월말까지 수입 계란 5만에 긴급할당관세(0%)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선란 총 1만531만개를 수입했고, 이달 중 4000만개 이상을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이 식품·외식 등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자재 수급 동향도 모니터링 해 업계와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삼성전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확대

비트코인 등 30여가지 가상화폐 안전하게 보관
 하드웨어 월렛 연결 지원...뉴스피드 기능도 제공

삼성전자가 모바일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금융, 의료,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블록체인 개발 및 대내외 서비스 협업을 진행했던 인력을 한데 모아 무선사업부 산하 블록체인 개발그룹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블록체인 대중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2019년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월렛을 도입하며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했다.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30여 가지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관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 키'를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가상자산 해킹이나 탈취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즉각 추적할 수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럭스 스토어에서 해당 앱 업데이트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 가상 자산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를 하드웨어 월렛에 저장 가능해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지원하지 않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도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 월렛은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ERC 토큰, 트론(TRX), TRC 토큰 등 대표적인 암호 화폐를 지원하며, 소셜미디어·금융·보안 등 각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앱(DApp)'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를 통해 블록체인 솔루션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블록체인 월렛과 '디앱'에 사용되는 개인 키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암호화돼 저장되며, 추가로 보안 프로세서를 통해 보호된다. 또 개인 키는 사용자 본인의 지문이나 PIN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김민정기자